

군산시, 농가소득보전사업 시행

기존 사업 다수 변경 · 조정 안내... 맞춤형 비료 · 육묘용 상토 지원 · 농가경영안정자금 등

군산시가 올해부터 지역 쌀 품질 제고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전격 시행하고 있다. 농가소득 보전사업의 세부 지원내용은 맞춤형 비료 지원, 육묘용 상토 지원, 농가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하다.

농가소득보전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로 군산시민(2024년 기본형공익직불제 등록 기준)이면서 전북특별자치도내 농지 0.1ha 이상 경작자이다.

특히 맞춤형 비료 사업은 최대 지원 면적이 30ha가 한도였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5ha로 조정되었다. 사업 전환 배경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으로 농자재 가격을 보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검토하면서다.

이에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비료를 100% 현물로 지원하는 군산시 입장에서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 지원이 불가할 수 있는 상황 발생이 우려됐고, 이에 사업을 전환할 필요성을 느껴서다.

이외에도 △기존 사업 신청 및 현물 수령이 불편하다는 잦은 민원 △농가별 선호 농자재 상이로 인해 현금 지급으로의 변경 요청 증가 추세도 사업 전환의 이유로 대두되었다. 이에 군산시는 맞춤형 비료 사업에서 현금 지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반면 기존 맞춤형 비료 대상 농지 및 포수는 기존과 동일하다. 농타작물을 포함하여 벼 재배지에 맞춤형 비료 기준 밀거름 15포, 이삭거름 7.5포를 1ha당 총 22.5포 지원하며 맞춤형 비료 외에도 유기질비료, 안효성 비료, 중비료로 선택해도 된다.

상토 지원 사업 역시 벼 재배지에 한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지원 면적 5ha 상한으로 정했다. 지원은 1ha당 경량 40L 기준 30포 내외, 중량 20L 기준 60포 내외이며 희망 농가에 한해서는 상토 대신 현금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맞춤형 비료 및 상토 지원 사업은 2월 중 신청받을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한다. 만약 군산시에 주소가 있으나 도내 타시군 농지 경작자라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가경영안정자금은 맞춤형 비료 및 상토 공급 후 농가소득보전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정해지며, 기존에 면적별로 지급하던 방식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소농, 면적별로 구분하고 밭 농업 재배 농가에는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황관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맞춤형 비료 및 상토 공급을 통해 시 토양에 맞는 비료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고 품질 쌀 생산에 이바지하고 농가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다수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 봄철 산불방지 대응 본격 돌입

봄철 산불조심 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발대식 개최... 산불감시원 · 산불진화대원 위촉 등

익산시가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는 5월 15일까지 운영되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산림과 전 직원이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 각 읍면동에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10여 명이 배치해 현장 맞춤형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함라산과 천호산, 시대산, 당제산에는 산불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산불감시원이 주요 등산로에서 입산 시 행동 수칙을 안내하고 마을 방송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날 31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산불방지 발대식’을 개최하고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결의문을 낭독하며 산불 방지와 산불 피해 최소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또 산불 예방·진화 활동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봄철 산불의 원인 중 하나인 논·밭두렁 불법 소각 방지도도 적극 대응한다. 시는 본격 영농 활동이 시작되기 전 산림과 인접한 논밭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물을 파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산불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사회적기업가 발굴 나선다

‘익산형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14일까지
최대 2000만원 사업화 자금 ·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 지원

익산시가 사회문제 해결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가를 발굴·육성한다.

익산시는 2025년 익산형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할 창업팀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익산형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적기업가를 목표로 하는 예비 창업자나 5년 이내 초기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와 대면평가 등을 거쳐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는 예비창업팀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www.ikse.or.kr) 또는 익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익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063-859-3406)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창업자의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창의성과 잠재성을 갖춘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토마토빨나방 사전방제 지원

토마토 재배 전(全) 농가 대상, 방제 약제 · 물품 등 배부... 12일까지 신청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가 토마토빨나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토마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 약제, 방제 물품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는 2월 12일까지 받는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토마토 입식 초기부터 해충 피해를 사전 예방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 재배를 포함한 관내 토마토 재배 모든 농가에 1ha당 20만원의 방제 약제, 유기 농업 자재와 15만원의 예찰·방제 트랩, 교미교란제 등을 배부하기로 했다.

또한, 관내 토마토빨나방 개체 분포 조사를 통해 발생 현황과 밀도 등을 점검해 조사 과정 중 토마토빨나방이 발견되면, 농가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즉각 방제한다는 방침이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토마토빨나방 예찰과 방제법 등도 교육할 계획이

다. 교육을 통해 △해충 특성과 피해 양상 △성충 유입 방지 시설관리 △해충 발견 시 관리 방법 등을 알려주게 된다. 사업은 오는 2월 12일까지 읍면동 농민상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2월 중에는 토마토빨나방 약제 선정 협의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토마토 빨나방 특성 및 예찰·방제법에 대해 농업인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 SW중심대학사업단, 메타 SW 플로깅 발대식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정동원)은 최근 국립군산대학교에서 봉사문화 활성화를 위한 메타 SW 플로깅 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발대식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대식에는 국립군산대 메타 SW 플로깅 봉사단원, 정동원 단장, 김장원, 이석훈, 정현준 세부책임 교수, 정연희 학부장, 군산플로깅 김중신, 강수정 공동대표, 김기향 교육부장, 김정화, 조명미, 박옥중, 송미례, 김주란 회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발대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에서 지원하는 SW중심대학사업의 참여 구성원과 지역사회 군산플로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 메타 SW 플로깅 봉사단 임명장 수여, 연간일정공유, 봉사단 소개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올 한해 함께 활동할 학생들과 군산플로깅 주요 인사와 서로 소통하는 시간과 함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플로깅이라는 주제로 김기향 교육부장의 전문가 특강이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는 더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부를 컴퓨터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으로 승격했으며, 컴퓨터소프트웨어 단과대학을 모집단으로 하여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지역산업과 교육발전을 위한 혁신모델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

창업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가 새해 군산시 (예비)창업가들을 위한 원스톱 창업컨설팅을 실시하며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창업아카데미’는 오는 12일부터 1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군산시 청년뜰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기본반과 고도화반으로 나누어 수준별 교육 및 그룹 상담을 진행하며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통한 창업지원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도록 돕는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 수료생이 당해연도 정부 자금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창업센터의 ‘온라인기반 홍보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업체별 200만 원 한도 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육 이후 필요시 원스톱 창업컨설팅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수준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후속 연계를 지원한다.

교육생 모집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모집 인원은 15명이다. 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군산시 (예비)창업가들이다. 신청은 군산시 청년뜰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익산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2025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2개 사업 총 1,219명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의사진단서, 추천서 등 서비스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후 익산시에 등록된 50여 개의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국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